

# “행운의 연속” 제6회 전국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를 마치며

건국대학교 황나린, 강혜진



돼지부문 대상 시상식 (이원복 지원장님, 강혜진, 황나린, 백중호 원장님, 윤갑석 팀장님)

“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를  
 현직 평가사분들께  
 직접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은  
 분명 식육산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



서울지원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교육받는 중 (지성환 교관님, 강혜진, 황나린)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제6회 전국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돼지 부문 내상을 수상한 건국대학교 축산식품공학과 황나린, 강혜진입니다. 시상식이 지난 지 5일 정도 됐음에도 아직까지 내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총 9팀, 18명이 예선 경쟁을 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실력이 출중한 동기와 선배들이어서, 사실 저희가 예선을 통과할 거리고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카페나 심지어 기숙사 1층에 비치된 의자에서도 함께 하면서 서로의 공부를 점검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학과 게시판에 걸린 '본선 진출자 명단'에서 저희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게시판 앞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예선을 통과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이 이상의 행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월 10일, 본격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서울지원이 위치한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소·돼지 부문 교관단의 이론과 실기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속대학 대표로 선발되어 본선에 진출하게 된 것이기에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교육 첫날, 공판장까지 가는 그 어려운 길, 서약했던 다른 대학 본선 진출자들, 무서워 보였던 교관분들이 이렇게까지 익숙해지고, 함께 할 때 즐거워질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한 달간 너무 친숙해진 탓에 돼지도체마저 귀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교육을 받으면서 슬겁고 신기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장소가 멀어 아침잠을 이겨내고 오전 6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본선준비와 학교 과제,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학교 강의실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축산물 도체 품질평가를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전부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기평가 준비과정에서 축평원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회 참가 전에는 박연히 축산물등급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딘가에는 있겠지' 했습니다. 그 기관이 축평원이고, 이 기관이 단순히 등급판정 업무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 돼지의 이력제 및 축산물 유통정보 분야 또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회에 참가해 교육을 받으면서 축평원의 역할을 이해하게 됐고, 축산물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 대한 신뢰와 흥미 또한 높아졌습니다. 교육받았던 서울지원은 최고의 교육환경과 강의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교육환경을 관리해주시고 학생들 모두에게 격려와 힘을 주신 이원복 지원장님, 저희의 '돼지 스승님' 지성환 교관님, 소 팀의 교육과 전체적인 이론 교육까지 도맡아 열강해주신 박승필 교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환경과 강사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